# 초가을 극장가 '따뜻한 가족애' 느껴보세요

〈산타렐라 패밀리〉

〈마이 시스터즈 키퍼〉

〈날아라 펭귄〉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잇따라 개봉된다.

10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마이 시스터즈 키퍼'는 '맞춤아기'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다룬 작품이다. 아픈 언니의 치료를 위해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동생이 자기 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미국 도서관협회 선정 '알렉스 어워드'를 수상한 조디 피콜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영화의 결말은 소설과 다르다.

두 남녀의 아련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눈물샘을 자극했던 '노트북'의 닉 카사베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연기를 위해 삭발까지 감행한 카메론 디아즈가 진한 모성애을 전하는 엄마 역을 맡았다. 또 '미스 리틀 선샤인'으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던 아역배우 아비게일 브레슬린과 소피아 바실리바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한편 '쌍둥이별'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화제를 모았던 원작소설은 이번 영화 개봉에 맞춰 '마이 시스터즈 키퍼-쌍둥이별'로 재출간 됐다.

배우 김영애와 최강희의 '애자'(10일 개봉) 는 평생 원수처럼 지내온 모녀가 결국 서로 가장 사랑하고 필요한 존재였음을 깨닫는 화해의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최강희는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와 과격한 욕을 입에 달고 살며 세련됨과는 거리가 먼 노처녀로 출연, 기존의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선보였다.

연기파 배우 김영애가 엄마역을 맡아 오랜만에 영화계로 돌아왔으며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 출연했던 배수빈의 최강희의 남자친구 역을 맡았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임순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날아라 펭귄'(24일 개봉)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 지원한 소규모 영화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교육 열풍 속에서 9살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부, 직장 내 상사들로부터 '왕따'당하는 신입사원, 아내·자식과 생이별한 40대 기러기아빠, 황혼 이혼을 생각하는 노부부 등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가 펼쳐진다.

'워낭소리'를 제작 · 배급했던 고영재 PD가 독립영화 전문 배급사 '스튜디오 느림보'를 창립한 후 처음으로 선택한 영화로 문소리, 박원상, 손병호, 최규환, 박인환, 정혜선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스페인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유쾌한 코미디 영화 '산타렐라 패밀리'는 10년만에 나타난 아이들과 아버지의 만남을 그린 작품이다.

마드리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레스토랑 쉐프 막시 앞에 어느 날 10년만에 두 명의 아이가 나타난다. 아이들은 동성애자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는 서로 부대끼며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그녀에게'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돌보던 간호사로 출연했던 하비에르 카마라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2008 말라가스페인영화제 최우수 감독상, 남우상 수상작이다. /김미은기자 mekim@

〈애자〉

## 새영화 프로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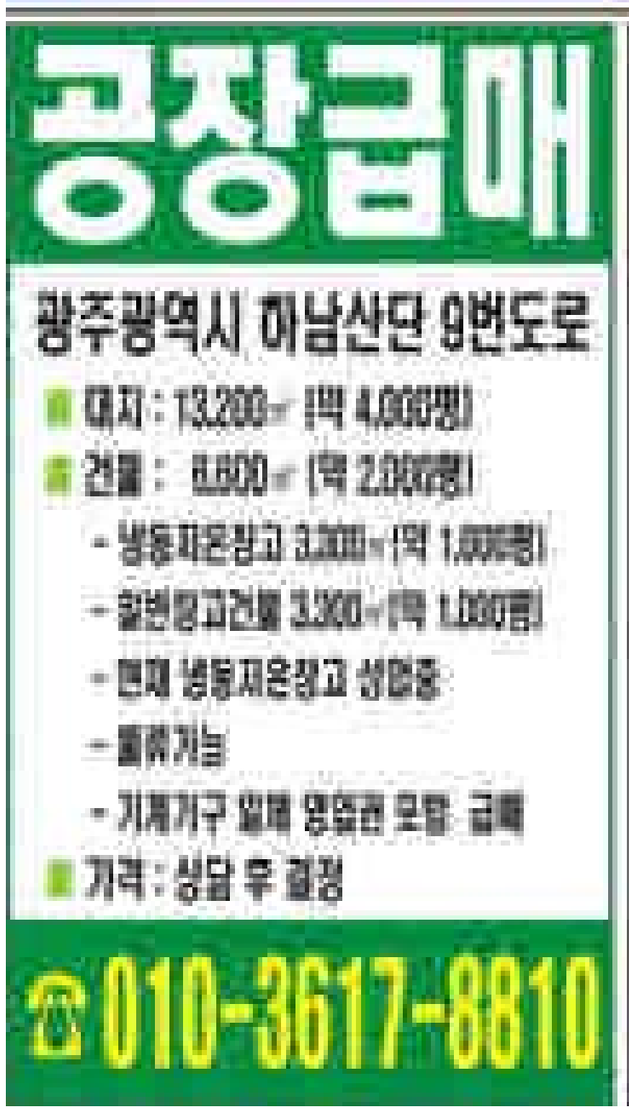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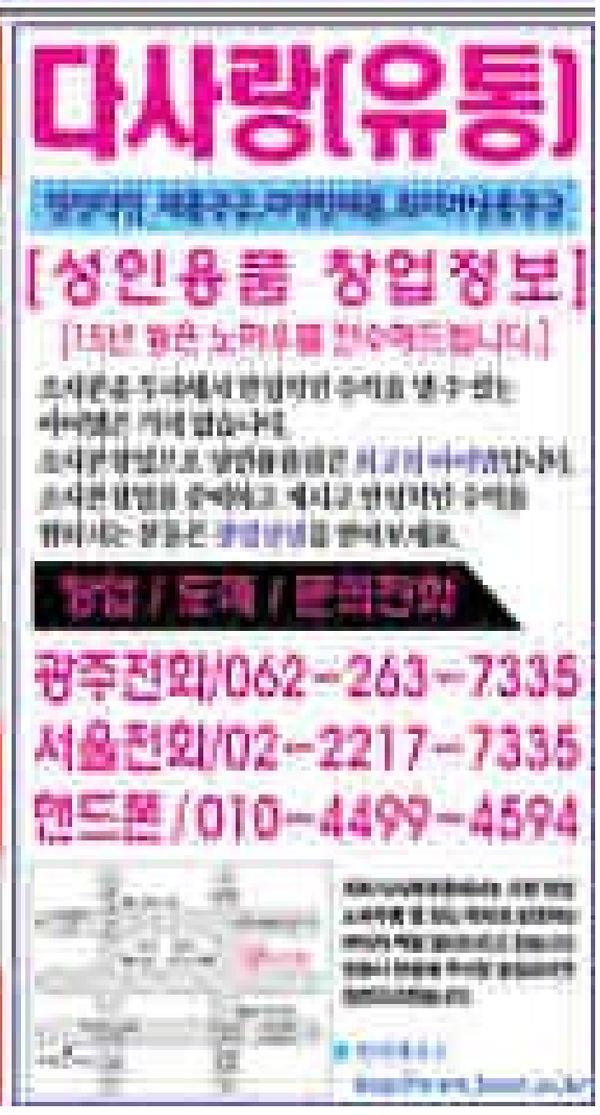
'당신이 잠든 사이에' 등에서 사랑스런 연기를 보여줬던 산드라 블록이 주연을 맡은 로맨틱 코미디다.

잘 나가지만 '마녀'라는 별명처럼 성격은 만만찮은 출판사 편집장 마가렛은 비자 문제로 졸지에 고국인 캐나다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다.

임시방편으로 편집자 될 날만 기다리며 3년째 그녀의 수발을 드는 비서 앤드류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짓말을 둘러댄 마가렛은 승진을 전제로 앤드류와 연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

급조된 가짜 커플은 앤드류 할머니의 생일을 맞아 이민국의 눈을 속이기 위해 알래스카에 있는 앤드류의 본가로 약혼 발표 여행을 떠나지만 그곳에서도 둘은 시종일관 티격태격한다.

두 사람의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와 함께 사춘기 시절 부모를 잃은 마가렛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앤드류 가족들과의 해프닝이 잔잔하게 흐른다.

앤 플레처가 메가폰을 잡았으며 '엑스맨 탄생-울버린'에도 출연했던 라이언 레이놀즈가 남자 주인공 역을 맡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